

광주 고려인 노동자들 임금체불에 운다

임금체불 536건 호소...수십여명은 약덕업체에 퇴직금 떼어 산재 약용도 일쑤...시민권익변호인단 소송·구제 활동 나서

광주에 사는 고려인 3세 노동자 대다수가 임금체불과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민단체는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에서 항일운동을 지원했던 고려인들의 후손인 만큼 지역사회가 나서서 도와줄 것을 촉구했다.

19일 광주YMCA 시민권익변호인단은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벌인 결과, 상담 건수의 90%가 임금체불일 정도로 고려인 대부분이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권익변호인단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매주 월요일 광주고려인마을에서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17개월 간

의 무료 법률지원 사례 분석에 의하면 총 594건의 상담 가운데 임금체불이 536건(90%), 산재 17건(3%), 비자문제 15건(3%), 기타 교통사고·부동산임대차·채권 채무 21건(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상담 건 수 중 가장 많은 임금체불은 개인당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까지 다양했으며, 퇴직금을 떼인 노동자들도 수십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모(아·59·우즈베키스탄)씨는 2년여 동안 일한 지역 소규모 가전제품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했다. 유씨는 연차수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뿐만 아니라 고지 받지도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모(43·우즈베키스탄)씨 또한 배달업체에서 13개월 동안 일했으나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구제를 신청했다.

손모(58·러시아)씨는 지난 2018년 11월 한 병원에서 작업하던 중 오른쪽 손가락을 다쳤다. 즉시 수술을 했지만 현재까지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심한 통증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업체측은 유씨에게 산입해보상 절차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유씨는 “상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은 오히려 뒤늦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었다.”

시민권익변호인단은 고려인 노동자들 대다수가 한국법에 익숙치 않아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고려인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산재를 당하더라도 호소할 곳이 없는 상황을 약용한 약덕업체들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광주 거주 고려인은 4000여 명으로 경기도 안산시에 이어 가장 많은 수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려인들 사이에서는 광주에서 각종 법률·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광주시민들은 정이 많다’는 소리가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권익변호인단은 광주 YMCA 기금을 우선 투입해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소송 및 구제 활동을 적극 벌일 예정이다.

무료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강형욱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은 고려인에 대해 이주 노동자보다 못한 대우와 임금체불 등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빠이픈 역사를 가진 동포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약덕사업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먹고 살기 힘들어서”...“형이 안 도와준다” 광주 잇단 ‘화김 방화’...시민들 불안

최근 광주에서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한 이른바 ‘화김’ 방화(放火)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10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 여관 2층 객실에 불을 지른 A(36)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니 교도소나 가자라는 생각이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여관에는 6명이 숙박하고 있었으며, 화재초기 업주가 소화기 등으로 자진 진화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교도소에 가고 싶다. 구속 시키지 않으면 또 불을 내겠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26일 새벽 3시 30분께에는 술집 여주인을 폭행한 뒤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주시 북구 동림동 B(아·58)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B씨의 집 복도쪽 유리창을 깨고 깨진 틈 사이로 페트병에 든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C(58)씨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로 구속됐다. 다행히 집에 있던 B씨의 아들이 라이터를 빼앗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전 9시 20분께엔 형이 잘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둘째 형(81) 주택 때문에 불을 지른 D(60)씨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D씨는 형이 과거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고, 평소 막대한 자신을 잘 챙겨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주병에 휘발유를 담아 대문 등에 뿌려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날 오후 2시 15분께에도 광주시 북구 양산동 단독주택에서 평소 어머니가 부모 역할을 못 하고 돈만 쓴다며 70대 노모와 함께 사는 집 거실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장남 일부러 태운 아들 E(50)씨가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방화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가중돼 방화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방화범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2년째 단체 헌혈합니다” 광주에덴병원(원장 허정) 임·직원들이 혈액수급이 원활치 못한 동절기를 맞아 19일 헌혈 버스에 오르기 전에 환자와 방문객들을 상대로 헌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에덴병원 임·직원들은 22년째 겨울철 단체 헌혈행사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3·1운동 시작은 부동교 아닌 광주교”

노성태 국제교 역사교사 주장
오늘 100주년 학술세미나서 발표

광주에서 처음으로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은 부동교 아래가 아닌 광주교 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 3·1혁명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20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광주·전남 3·1혁명의 재평가’라는 주제로 3·1혁명 100주년 학술세미나 개최한다.

노성태 국제교 역사교사는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당시 판결문을 통해 광주 3·1운동을 재구성한 결과를 발표한다.

노 교사는 19일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3·1운동의 주역 중 한명이었던 최한영 선생의 회고를 정리한 글이 ‘광주시사(1993)’에 그대로 실렸고, 광주시사의 글을 다른 책들이 참고하면서 많은 오류가 생겼다”고 밝혔다.

최한영 선생의 회고담은 광주 3·1운동이 일어난 지 46년이 지난 뒤 쓰였고, 회고에 의존하다 보니 이름과 날짜, 형량, 시위 경로 등이 당시 판결문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히 “광주 3·1운동의 최초 시위 장소는 작은 장터가 열리고 있는 부동교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큰 장터인 광주교 아

래 모래사장에서 (시위)개시를 선포했다”며 “큰 장터에서 시작해 약 500m 떨어진 작은 장터 쪽으로 이동, 그곳에서 대규모 만세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시위 경로 역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기존엔 시위대가 서문-충장로-충장로파출소-금남로-구법원앞-광주경찰서를 행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교사는 “시위대는 서문을 통해 충장로를 향해 행진했고, 북문 밖(현 충장로 4가)까지 나갔다가 농업학교 학생들과 합세해 다시 충장로로 돌아왔다”며 “충장로 우체국까지 행진한 시위대는 일본 경찰이 진압을 시작하자 바로 옆에 있는 광주경찰서 앞마당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곡성 농장주 살해 용의자 체포

곡성경찰청 “지난 15일 실종된 50대 농장주를 강도 살인한 혐의의 A(4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농장주 B(59)씨를 숨지게 하고 예금된 돈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최근 B씨 농장 주변에서 고물상을 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이후 가족과 연락이 끊겼으며, 평소 타고 다녔던 승용차가 실종 3일만인 18일 다른 마을 폐교 옆 공터에서 발견됐다. B씨의 승용차 뒷좌석에는 B씨의 혈흔이 있었다. 경찰은 18일 밤 10시 50분께 광주시 서구에서 용의자 A씨를 검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검찰 ‘손혜원 의혹’ 문화재청·목포시청 압수수색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오전 대전시 소재 문화재청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서류, 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기획재정담당관실 등에서 손 의원 투기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날 목포시 남교동의 목포시청 도시발전사업단의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사무실에서도 직원 휴대전화와 컴퓨터, 서류 등을 확보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의 자료들은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없어 영장의

형식을 빌려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어떤 자료가 있는지 직접 분석해 향후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시민단체 서민생태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한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문화재청을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손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인 등의 명의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부동산을 다수 매입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손 의원은 “미공개정보 활용 의혹은 허무맹랑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문화재 지정을 막아야 오히려 아파트 재개발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레이싱 모델 류지혜 낙태 논란에 ‘극단선택 암시’ 한바탕 소통

“낙태를 했다”고 고백한 레이싱 모델 류지혜(30)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경찰이 자택으로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통.

○19일 서울 강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께 류씨의 자살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류씨의 집으로 긴급 출동했으나, 류씨가 “수면제를 먹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병원으로 옮겨 건강 상

태를 확인하도록 조치했다는 것.

○류씨는 이날 오전 개인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의 한 방송 BJ와 통화하며 한때 연인 관계였던 전 프로그래머 이영호(27)씨 때문에 낙태를 했다고 밝혔으며, 이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는 등 논란이 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난 이제 죽어’ 등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게재.

/연합뉴스

이제 노안과 백내장을 동시에 해결하세요

신세계안과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

- 기존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상 절개를 수기로 진행
-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은 3D OCT 통해 안구 상태 실시간 확인
- 안구 스캔 후 자동으로 3D 알고리즘을 통한 정밀 분석
- 3D 펄스레이저 레이저 시스템으로 정교한 수술 가능
- 3차원 입체절개 방식으로 개개인의 정확한 맞춤 난시교정 가능
- 개별 맞춤형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 삽입으로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시력 가능
- 자동 안구보호 시스템으로 수정체상 파열, 홍채 손상 등 합병증 방지
- 레이저 최소절개 수술로 다음날부터 돋보기 없이 일상생활 가능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